

(가)

나의 마음 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습니다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어느 그 날,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음이여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줄이 더욱 백 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악(雪岳)에 뻗는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이 나무는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당신이여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겨울밤

- 김남조, 「설목(雪木)」 -

(나)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다.

그렇게 명성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저무는 가을 하늘에 인가(人家)의 정서를 품던

굴뚝 보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두만강 건너는 이사꾼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 앉으니

어머님 한 분만 오시잖아서 ㉢별안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 둘 곳이 없었다.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 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

지 무너져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익기도 어려워

겨울 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다.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돌며

자리를 끌고 한 치 한 치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大地)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 질 무렵

천장에서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귀뚜라기가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라.

- 김광섭, 「겨울날」 -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독백의 방식을 통해, (나)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가)의 ‘시냇물마저 여위는’ 것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가)의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은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나)의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견뎌 내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나의 마음 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 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설악에 뻗는’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나무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겠군.
- ⑤ ‘당신’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4. (나)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을 통해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 돌아오지 않아

그를 기다려 저녁 한길로 나가보니

보오얀 초생달은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느릅나무 그늘 새로 화안히 불밝힌 우리 집 영머리엔

북두성좌의 그 찬란한 보국(譜局)이 신비론 ㉠꽃대처럼 지켜 있나니

때로는 하나이 병으로 눕고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도련도련 이뤄지는 너무나 의고(擬古)*한 단란을

먼 천상(天上)에선 ㉡밤마다 이렇게 지켜 있고

인간의 수유(須臾)*한 영위(營爲)*에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듯 맑게 인연 되어 있었나니

아이야 어서 돌아와 손목 잡고

북두성좌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 유치환,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

* 의고: 옛것을 본뜬.

* 수유: 짧은 시간.

* 영위: 일을 꾸려 나감.

(나)

냉장고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온순히 꽃혀 있지,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애

교외선을 타고 갈곳없이 방황하던 무렵,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초라한 행상아줌마가 팔고 있던

수십 마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

마분지곽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마분지곽 위로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그런 노란 것들이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이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나의 눈에 문득 눈물처럼 다가와 고이고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화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아아, 얼마나 슬픈가,

차가운 냉장칸 맨 윗줄에서

달걀껍질 속의 흰자위와 노른자위는

무슨 꿈들을 꾸고 있을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에서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흰자위와 노른자위도

무슨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엄마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어미닭에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처럼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너희들처럼

나도 역시 여권이 분실된 사람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 김승희, 「달걀 속의 생(生) 2」 -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⑤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6.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면 ‘복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보면 ‘너희들’은 금전적으로 평가 절하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우리 집’은 화자가 (A)으로 활용된 소재이고, (나)의 ‘냉장고’는 화자가 (B)로 활용된 소재이겠군.

- ① A: 현실에서 외면하고자 하는 공간
B: 이상 실현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근거
- ② A: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
B: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
- ③ A: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공간
B: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
- ④ A: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
B: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한 이유
- ⑤ A: 과거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간
B: 현재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려는 동기

8. (나)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적 화자는 일반적으로 일인칭에 해당하며, 시적 대상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인데,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의미한다.

-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에서는 화자가 ‘보오얀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시각적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각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에서는 화자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 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상황을, (나)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비 걱정을 하’는 ‘우리’를 통해 ‘형제들’ 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 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나’를 통해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군.

- (가)
- [A] —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B] —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 [C] —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 [D] —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 [E] —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건**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0.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③ [C] :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D] :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뿔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가)

1

부여안은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훑날린다. 골이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A]

과랑게 하늘이 열었다. 하늘에 나는 후 - 입김을 뿜어 본다. 스러지며 올라간다. 고요 - 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太古)! 태고에 놓여 있다.

2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겠가? -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쪽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리랴. 한 마리 멧새도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 두견도와 울어라.

[B]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 본다.

3

나는 눈을 감어 본다. 순간 번뜩 영원이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멀하지 않고 오래 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멀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C]

언제 이런 설악까지 원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로 화창하게 살아 불날이, 그립다. 그립다.

- 박두진, 「설악부」 -

(나)

내 마지막으로 들 집이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산 아니면 또 어디이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육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이겠는가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 온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든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 내고 그곳에 채색된 단청(丹青) 올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穴居)마저 줄어든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가시 되어 일어선다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十字繡)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의 콩밭 누렁잎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 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 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내 이 길 역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 둘 수 있을까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와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도등 두드려 한 열흘 잠재울 수 있을까

먼저 간 발자국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 또한 뒤이은 발길에 이내 지워지고 말
한쪽 끝에는 대구(大邱)*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해사(銀海寺)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길

- 이기철, 「길의 노래」 -

* 예지 :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뛰어난 지혜.

* 대구 : 경상북도에 있는 대도시.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4.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흘날린다’, ‘뒤덮였다’, ‘빠진다’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는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B]는 ‘산’에서 ‘양지쪽’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 공간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B]는 ‘내 푸른 무덤’에 ‘도라지꽃’, ‘산나비’, ‘멧새’, ‘두견’ 등이 어울리는 모습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C]는 ‘살아 볼 날’을 ‘그립다’와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세계를 떠올려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가닥도’는 화자가 욕심을 조금도 덜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 ② ‘혈거마저’는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
- ③ ‘칠판 앞에서만’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삶에 성찰적 시선이 이르고 있음을 부각한다.
- ④ ‘예지도’는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자연에서는 성가신 것이 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⑤ ‘늘 내일로만’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부각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나)는 무위(無爲)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두 작품은 자연의 가치를 조명하며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고 한 것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항구적으로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달력’과 ‘일과표’가 ‘내 늑골 밑에서 보채’었다고 한 것은,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길’이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다른 쪽’에는 ‘술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한 것은, 자연의 세계를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산’을 ‘내 영원한 어머니’로, (나)에서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산’을 ‘내 마지막으로 들 집’으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겠군.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칸,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웅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
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
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
츄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
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썩***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
다.

- 백석,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딜웅배기 :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나긋손 : ‘저녁때’의 방언. * 썩 :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 그 방을 생각하며 」 -

1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딱’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① (가)는 ‘권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새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A]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B]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짊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C]

- 신석정, 「역사」 -

(나)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 들이 살았다
별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늦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 방이 방 한 칸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하릴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백 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몽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의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 문태준, 「빈집의 약속」 -

(다)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만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는 듯이 하다가 앞으로 나아와 그

맥을 짚어 보았다. 그러고는 물러나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낮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 보니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무엇을 더 고치고 싶은지요?”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중략)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이 있어서 살이 찹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보니 기빠서 살이 찌고, 소리의 가락이 어여쁘지라 즐거워서 살이 찹지요. 이 네 가지를 몸에 지니면 살찌기를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찹니다.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가난한 데다 신분도 낮고 쭉대로 엮은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와 거친 밥을 먹습니다. 눈은 다섯 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귀는 다섯 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찢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비(良肥)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구려. 내가 진실로 이 네 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하였소. 어찌 이른바 양비란 것이 있단 말ियो?” 의원이 말했다.

“㉡**이른바 양비란 것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채우고 인의로 윤택하게 해서 낮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대는 또 초나라 장사꾼의 일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형산(荊山)의 옥** 하나를 쌓아 두니 그 값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나라로 갔다가 금은보화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기빠하여 이것과 맞바꿔 돌아왔습니다. 대저 금은보화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부(良富)만은 못합니다. 장사꾼이 그 타고난 부를 잃고 나서는 어느새 밀천 또한 다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두들 초나라 장사꾼을 비웃었지요.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찾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것마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어찌 다만 초나라의 장사꾼 정도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탕이 있어 살찌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음을 가지고 병으로 삼지요.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 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어찌 자기의 형옥(荊玉)을 가지고 금은보화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 김석주, 「의훈」 -

2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인식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다)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할 때,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어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온 민중을 떠올린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온 주체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을 달래꽃은 여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렵פות이 이끌려 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역사를 이어온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 햇볕, 바람,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2. 마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마음’은 ‘보드라운’과 연결되어 애상적 분위기를, (나)에서 ‘마음’은 ‘오롯하게’와 연결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② (가)에서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나)에서 ‘마음’은 ‘착한 사진사’와 연결되어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강조한다.
- ③ (가)에서 ‘마음’은 ‘알 수 없는’과 연결되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나)에서 ‘마음’은 ‘하릴없이’와 연결되어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마음’은 ‘조출하게’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나)에서 ‘마음’은 ‘몰아쳐’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를 드러낸다.
- ⑤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나)에서 ‘마음’은 ‘늘 빈집’과 연결되어 채워졌다가도 비워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23. (다)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지지 못한 것을 얻으려 하다가 ‘양비’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한다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실재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생생하게 구체화하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관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마음에 ‘수의’를 걸치고 있다는 표현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빗댄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손의 ‘핏줄’이 뜨겁다는 표현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촉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는 표현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재하는 대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마음 안의 ‘고요’가 둥그렇다는 표현은, 화자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한 것이겠군.

(가)

문(門)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흰출한 줄기마다
맷방석만한 꽃송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파아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퉁잇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五色)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 조지훈, 「꿈 이야기」 -

(나)

누이여
또다시 은비늘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뿔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겅퀴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 기형도, 「나리 나리 개나리」 -

2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나)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26.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2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음은 실체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잇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잇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A]

돌 위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돼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

[B]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낯선 곳으로 갔더니라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이
까치 등주리 있는
아까시아가 그림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림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이 돌아오라”

[C]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D]

이 며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E]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오들막 :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 강낭콩.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땅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칸텔라 :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29.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B] :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0.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흑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힘상국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가)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릅드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
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중이 여섯 판에 여
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
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 장수산 1 」 —

* 벌목정정 :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 홀로 우뚝한 모양.

(나)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른다

〕
[A]
〕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앓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 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 나게 닦은 마루에 곳곳이 앓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쫓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
[B]
〕

사랑은 갇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앓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 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
[C]
〕

— 고재중, 「 고요를 시청하다 」 —

* 고금 :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

3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술’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 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좇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3.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새암’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된다.
- ②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B]에서 점점 확산하여 ‘덩굴장미’의 색채와 어우러지며 계절감을 부각한다.
- ③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마당에 ‘붉은 진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 ④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은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되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 ⑤ [C]에서 ‘초록바람’은 ‘오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오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겠군.
- ②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적 상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멧아리 소리 찌르렁’과 (나)의 ‘동박새가 / 딱 한 번 울어서’는 모두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겠군.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의 ‘삼베올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피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앓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 -

* 별목정정 :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 홀로 우뚝한 모양.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C] 수령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D]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생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E] 물왕저수지라는 핏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꽃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긴 가문 날 흙먼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핏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F] 잉어들은 찹찹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발효하는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다)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묻기를,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천한 일이온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대저 바다는 죽
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으며, 반드시 바닥에까
지 잠겨야 하며, 숨을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찾기를
다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찔러야
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도 없으며, 전
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사람을 잘
무는 **나쁜 고기**들도 많으며, **바다 밑**은 또 매우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
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십여 세가 넘으면
서 얕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익혀 깊은 데로 갑니다. 이십
세에 이르러서야 전복 잡이는 가능하며, 사십이 넘으면 그만
됩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털이 타
고 마르며, 그 살갗은 거칠고 얼룩얼룩하며, 일어나고 기거하
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의 괴롭고 천함이 이와 같으
며,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
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하니, 그 **잠수부**가 입을 딱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
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녀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어 같을 것입니다.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
히 앉아서 녹을 먹고, 수레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
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이 우뚝 높고, 조정에
들어가면 부(府)나 성(省)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
(州)나 부(部)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
를 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府省)
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領海)에 있습니다.

(중략)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
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
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 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
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어느 것이 더 낫
습니까?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
서 보건데,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벼슬
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
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
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쁩니다. 이제 그만듭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 김진규, 「몰인설(沒人詠)」 -

35.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 (다)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가) ~ (다) 모두 청각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썰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발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겠군.

37.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나’는 타인이 겪을 일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38. [A] ~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설(詠)의 표현 방법 중에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몰인설」의 글쓴이는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과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대화 상대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에서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군.

(가)

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개나리는 **노란 얼굴** 내민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냘프다고 / 억누를 수 있느냐
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보이지 않는다고 / 업신여길 수 있느냐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를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 김광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

(나)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드러내어 젊은이들이 힘겨운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 극단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노력을 그려내고 있다.
 - ④ ㉣ :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현대인을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굴에 빗대어 각자의 일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며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는 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에 있음을 보여 주며, 젊은이들도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삶을 극복해 낼수 있는 현대인의 생명력의 근원이 인간 바깥의 초월적 세계가 아라 인간의 내부에서 기원한다는 사유를 드러낸다.

- ① (가)의 ‘노란 얼굴’은 겨울임에도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화자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보이지 않는’은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나)의 ‘볼 수 없는’은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희망을 품고 향해 가는 곳임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현대인이 삶의 의지를 불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는 힘의 근원임을,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일상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임을 보여 주고 있다.

(가)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 간 」 -

(나)

큰일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천기누설이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 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제 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랴.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에 지은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

세상에 못 맷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떠꺼머리, 너는 ㉢무엄하게도 알아 버렸구나.

길 비켜라.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준엄한 힘 앞에
세상의 지위썸은 한낱 재미에 불과하리.

지금은 오후 두 시,
그대의 선덕은 ㉤이미 온몸이 흔들려
다보탑 아래 껌박 잠든 지귀에게 가 있느니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
네 가슴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

- 문정희, 「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 -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마지막 연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준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물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② ㉡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을 활용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에 대한 질책을 드러낸다.
- ④ ㉣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 ⑤ ㉤을 활용하여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해 단념한 상황을 드러낸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가)는 토끼가 유혹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가)는 두 설화를 재구성하여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노력과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천한 신분으로 선덕여왕을 사모하던 지귀가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그를 동정하여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변용하여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화를 연결한 것으로, ‘토끼’는 일제 강점기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귀토지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목에 멧돌을 달고’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귀의 마음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큰 불이 일어’서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는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